

보도시점 2025. 12. 23.(화) 18:00
12. 24.(수) 조간 배포 2025. 12. 22.(월) 09:00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 발표

- 케이(K)-푸드, 2030년 '수출 210억불' 시대 연다.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2배 이상 '압축 성장'을 위한 '범부처 총력 지원체계 가동'

정부는 12월 23일(화)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 '케이(K)-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에서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11월말 기준, 케이(K)-푸드 수출은 123.4억불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 주요 성장요인은 케이(K)-푸드 전통의 건강한 맛과 이미지,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간편·트렌디한 제품, 그리고 케이(K)-컬처 등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케이(K)-푸드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하에 2030년 수출 목표를 210억불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36억불)의 2배를 상회하는 공격적인 목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A-B-C-D-E의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전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먼저, 권역·시장별로 해외 선호, 상품 경쟁력, 농업 동반 성장 등을 고려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출 주력시장인 미국·중국·일본 등은 육류 메뉴에 어울리는 바비큐 소스류, 그리고 함께 페어링할 수 있는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의 과일농축액 등을 기본으로 하고, 현지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잠재 품목 등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유망시장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동시장은 지난 10월달에 최초 진출한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의 신선 과일을 집중 육성하고, 유럽연합(EU)은 고부가가치 건강 식품과 열처리가금육 등을 전략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품 개발, 유통,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단감(對중국), 제주산 한우·돼지고기(對싱가포르), 포도(對필리핀) 등 최근 검역 타결 품목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의 안전·위생 관리,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케이(K)-푸드 잠재 소비층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토대로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식수 부족 등 현지 특수성을 고려한 케이(K)-푸드 지원품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산쌀과 연계한 영양강화립, 간편식(죽 등), 조제분유, 음료, 에너지바 등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케이(K)-푸드 수출 기획단」을 구성(12.23)하여 유망 케이(K)-푸드를 발굴하고 권역별 전략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수출기획단은 ▲수출기업(신선 식품, 가공식품, 푸드테크, 농산업), ▲문화·관광·콘텐츠, ▲할랄 등 해외인증, ▲물류·유통, ▲관세·비관세 등의 분야에서 3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또한, 케이(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권역별 전략·개척·잠재품목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26년 1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케이(K)-푸드 홍보 행사를 통해 전통주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케이(K)-푸드 열풍이 해외 소비자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한식 교육·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오픈랩형 교육 프로그램인 수라학교를 내년에 개설하고, 외국인 대상 한식 커리큘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IA(미국)·르코르동블루(프랑스)·알마(이탈리아) 등 해외 요리학교 대상으로도 한식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2 윈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먼저, 정부는 분야별 심층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케이(K)-푸드 윈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상담 창구를 일원화(☎1566-1472)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한,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을 권역(국가)·유형별로 분석·정리하고,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로해소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그리고 식약처·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식품첨가물 규정 등 식품안전 규제·법령 개정 동향 등을 신속하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25: 360억원→'26: 720)하고, 환변동보험 자부담율 완화 등 수출보험 지원과 인증·컨설팅 등 케이(K)-푸드 수출 특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육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위조·모방품의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현지 단속이 강화되도록 재외공관 및 현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3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정부는 케이(K)-관광, 콘텐츠, 컬러, 소비재 등의 케이(K)-이니셔티브와의 융합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이 해외 케이(K)-푸드 소비층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첫째,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케이(K)-미식벨트를 고도화하여 인바운드 관광객이 케이(K)-푸드 소비자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치킨벨트를 시작으로 해외 관광객의 수요 등을 고려한 제2·3의 한식벨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하여 케이(K)-푸드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관련 케이(K)-푸드 제품 기획·개발도 지원한다.

셋째, 범부처적으로 한류·스포츠 행사 및 재외공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케이(K)-푸드를 적극 홍보하고, 한류스타·인플루언서 등 케이(K)-푸드 대사를 임명하여 케이(K)-푸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뷰티·패션·라이프 등 주요 소비재와 연계하여 체험이 가능한 융합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과일 마스크팩, 탈모방지 두유 등 뷰티·건강·생활용품 등 케이(K)-소비재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4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Technology & Innovation)

정부는 AI, ICT 등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스마트 공장 및 수출 전문단지를 적극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첫째, 한강라면기계, 3D 푸드프린터, 튀김로봇 등 푸드테크까지 케이(K)-푸드 수출의 외연을 확장하여 케이(K)-푸드 제품과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인·허가 취득 지원 및 외국 체험형 홍보행사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 식품제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의 성공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 및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를 내년에 신규로 조성('26: 20개소)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용 국산 신제품을 육성·보급하여 제2의 샤인머스켓을 발굴하고, 통관 애로 방지를 위해 2030년까지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설정 확대(86→108개 성분)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확보와 연구를 강화한다.

㉔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reach)

정부는 UAE를 거점으로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할랄·비건·코셔** 등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수시장 공략도 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할랄식품 수출협의체’**를 국내 인증기관 외에 수출기업까지 참여하도록 확대 개편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내에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을 지원할 **‘해외수출지원센터’**를 신설(‘25.12)하여 ‘사전 진단 - 기술 검증 - 현지 인증 - 시장 진입’ 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지원센터는 알코올 등 성분 분석과 기술지원 등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동·아프리카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코트라 농식품 중점무역관 지정을 확대(1→4개소)**하고, 할랄·비건·코셔 등의 해외식품인증 예산(60→70억원)과 지원 비율(70→80~90%) 확대 및 현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걸푸드(Gulfood)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쇼룸 내 한국 할랄식품관을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케이(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외교부는 케이(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검역·통관·위조상품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공공외교를 통한 케이(K)-푸드 홍보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K)-푸드와 케이(K)-컬처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케이(K)-콘텐츠 기업과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케로푸(K-로컬푸드) 33선, 케이(K)-푸드 로드 등의 미식 관광상품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활용 국내외 전시·상담회와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케이(K)-푸드 특화 물류인프라를 지원하고 통관, 인증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지원하고, 수출규제 신속 대응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및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한류행사, 뷰티와 케이(K)-푸드 연계 마케팅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수출국의 규제·인증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안전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식품 규제 관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태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의장국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지재권의 확보와 침해기업의 맞춤형 분쟁대응전략을 지원하고, 해외지식재산(IP)센터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기재부와 협업하여 주력 케이(K)-푸드의 품목분류(HS)코드 신설을 추진하고, 수출품목의 원산지 인증을 간소화(제출서류 8→1종)를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케이(K)-푸드의 비상은 지금부터!”라고 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전략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그 결과가 글로벌 비전과 2030년 수출 목표 실현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인포그래픽
- 2.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별첨)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51-773-548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미 (051-773-548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허희정 (02-2100-7667)
		담당자	행정관	김승환 (02-2100-7668)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민석 (044-203-3331)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044-203-3332)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나나 (044-203-2881)
		담당자	사무관	한지혜 (044-203-2885)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김도완 (044-204-750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장일남 (042-481-1502)
		담당자	서기관	김지훈 (042-481-3590)
	관세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붙임 1 인포그래픽

